

2000·2001년 강진 한 동네 잇따라 증발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미스터리

경기도 안양 이혜진, 우예슬양 살해·실종사건이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1년새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강진 여자 초등생 실종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주양(당시 6세) 김하은양(당시 7세)

대낮 도로변 감쪽같이 사라져

비슷한 시간대 실종... 목격자 없어 공개수사해도 뚜렷한 단서 못찾아 전면 재수사 착수... 진실 밝혀지길

인구 1만6천여명인 강진군 강진읍에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하룻길 여자어린이 두 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두 어린이 모두 대낮에 도로변에서 실종됐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 두 어린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본다.

<대낮 하룻길서 실종>=지난 2000년 6월 15일 오후 2시에 강진 동초교 2학년이던 김성주(당시 6세)양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를 기다리던 중 실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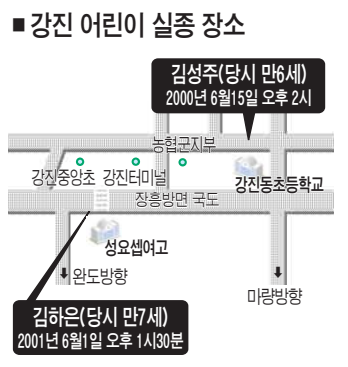
김양은 평소 학교를 마치고 오빠를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했으나, 이날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고교생 3명과 함께 강진 우시장 방면으로 갔다는 진술과 읍 농협 마트 맞은 편에서 남자 2명(40대 1명, 20대 1명)과 함께 있는 것

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결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집과 학교 주변, 인근 야산, 공터, 폐가, 건물 등을 수색하는 한편 전국에 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전국의 아동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강진 관내 주요 도로 3개소에 설치된 범죄 감시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1천400년 6월1일 오후 1시30분께 강진 중앙초교 1학년이던 김하은(당시 7세)양이 학교 후 집 근처인 강진 S여고 입구 횡단보도 주변에서 사라진 것이다.

김양은 이날 같은 반 친구 A군과 집에서 3분 거리인 S여고 입구 횡단보도까지 함께 걸었다고 한다. A군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고, 혼자 남은 김양은 이후 실종됐다.

김양을 목격했던 B씨(여·당시 30세)는 “김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봤으나,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체육대회를 열었던 S여고 학생 721명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이날 현장에서 김양을 봤다는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양의 통학로인 학교~남포리 집 2.4km 구간내 상가와 주민들 상대로 탐문활동을 벌이는 한편 남포리와 목리, 평동리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였다. 또 폐가와 비닐하우스는 물론, 인근 건설현장의 노동자 100명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경찰은 당시 이같은 수사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자, 주변 주택 내 재래식 화장실 안까지 뒤졌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공개수사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고, 지역 주민들도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성주·하은양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두 사건 연관성은 없나=당시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우선 ▲여자 초등학생 두명이 1년이란 시간을 간격으로 하룻길에 실종됐고 ▲실종 시간대가 모두 6월 오후 1시30분~2시 사이이고 ▲가쪽들에게 금품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유사점에 주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이나 물증은 찾지 못했다. 언론 공개 수사에서 1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정신이상자나 알콜중독자 등의 장난전화 뿐이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8년동안 두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별다른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전 수사력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안양 어린이 살해·실종사건과 관련, 강진 두 어린이 등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아생화 동산 불교 조계종 무각사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사찰 경내와 5·18공원 일대에서 토종 아생화 꽃밭만 들기 행사를 가졌다. 신도들과 가족들은 '행복의 꽃동산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매발톱, 할미꽃, 꽃무릇 등 토종 아생화 25종 9천여본을 심었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승합차서 갈탄 태우고 잠든 2명 질식사

50대 낚시꾼들이 승합차 안에서 갈탄을 태우고 잠을 자던 중 가슴에 질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지난 15일 새벽 1시13분께 진도군 임해면 석교리 석교저수지에서 김모(53·경기도 수원시)씨와 홍모(여·55)씨 등 2명이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일행 박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승합차에서 함께 잠을 자던 손모(여·57)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낚시를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승합차 안에서 고기구이용 갈탄을 태우고 잠을 잤다”는 박씨와 손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버스기사 숨진채 발견

16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시내버스 종점에 세워져 있던 지원 24번 시내버스 내에서 운전사 이모(57·광주시 북구 용산동)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운전사 박모(50·북구 두암동)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와 이야기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갔는데 음식물을 토한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예슬양 수색·발굴 작업 확대

모발·담배꽂초 등 수거... 범인 DNA 확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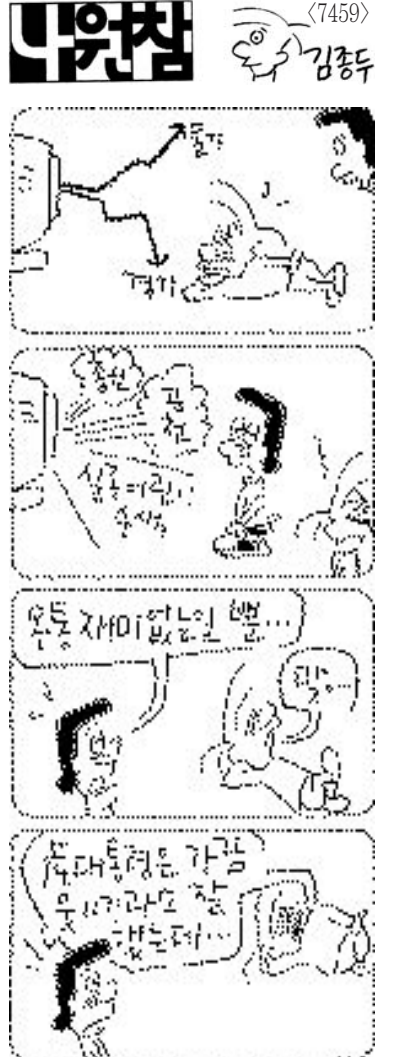
신라들목 인근 야산에서 발굴작업을 계속했다. 또 경찰은 이양과 함께 실종된 우예슬(9) 양의 생사 여부 확인과 유류품 수거에 주력했다.

경찰은 “수색지역은 범인이 시신을 안매장한 뒤 도로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며 “차량의

예상 동선에 설치된 30여개의 CCTV 화면을 분석 중이지만 저장기한이 5일에서 1개월이 대부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 당일을 전후해 안양과 수원에서 동시에 작발신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수사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안매장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 60여점과 담배꽂초, 옷가지 등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고 먼식범의 소행이라면 DNA대조로 검거가 용이하겠지만 비면식범의 소행이라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습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신청

택시 착각, 승용차 탔다 '주먹질'

○20대 취객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타려다 승용차 운전자를 팔다툼 끝에 폭행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16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인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신모(35)씨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해 승차했으나, 신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한 차례 때렸다는 것.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 소속 서모(40) 경사가 “이 차는 택시가 아니다. 실수한 것 같다”며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먹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원행방해혐의까지 추가해 입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앞서 만취한 상태에서 탔던 택시가 원하던 곳에서 내려주지 않고 가버려 화가 났었는데, 신씨까지 '내려달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Real Estate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ranging from 319,000 to 569,000.

대한항공 (Korean Air) advertisement for flight tickets to Jeju Island,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lane and promotional text.